

EDCF의 IT 분야 평가, 몽골 긴급구난정보망 구축사업 사후 평가 및 몽골 울란바토르 지능형교통망 구축사업 사후 평가를 위한 몽골 현지 조사

- 김학기 연구위원(국제산업협력센터)
- 주대영 연구위원(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
- 김천곤 연구위원(서비스산업연구센터)

1. 출장 개요

- 관련 사업명: IT 분야평가, 몽골 긴급구난정보망 구축사업 사후평가 및 몽골 울란바토르 지능형교통망 구축사업 사후평가
- 출장 지역: 몽골 울란바토르시
- 출장 목적:
 - EDCF의 IT분야 ODA 사업 평가를 위한 현지 조사
 - EDCF의 IT 분야 ODA 종료 사업장의 운영 현황, 성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 모색
 - 수원기관 책임자 및 운영 관계자, 정부 관계자 면담 조사와 설문 조사,

시설 확인 등

출장기간: 2012. 6. 28(목) ~ 7. 4(수)

평가 출장자:

산업연구원: 김학기 연구위원(IT 부문 평가)

주대영 연구위원(몽골 긴급구난정보망사업 평가)

김천곤 연구위원(몽골 울란바토르 지능형교통망사업 평가)

EDCF: 유은선 심사역(경협지원실 경험평가팀)

□ 주요 일정 및 방문 기관

일시	방문 기관	면담자
6. 28	OM302/인천출발(12:20), 울란바토르도착(14:50)	
6. 29	오전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Mongolia Office	Iwai Atsumu (Senior Representative) Arai Junichi (Project Formulation Adviser)
	MCS, Electronics LLC	Och, Ch (Head of Project Dep.)
6. 29	오후 Traffic Control Center of the Ulaanbaatar City	Lamkhuu Battsooj (Director) Dugerjav Batbold (IT engineer)
	현지 파견 전문가 및 진출 기업 관계자 면담	강재홍 (전임 교통개발연구원 원장) LG CNS 김동희 (해외사업팀 차장)
6. 30	ITS 사업 관련 울란바토르시 시내 제어기 및 CCTV 설치 장소 확인, 주요 혼잡지역 교통 상황 확인, 일반 수혜자 설문조사	
7. 1	EIN 센터 휴일 활동 상황 점검. 시내 VMS, CCTV 설치 추가 확인	
7. 2	오전 National Police Agency of Mongolia Information Emergency Command Center (EMIS 센터)	Batchuluun Tseren (Head of Information Emergency Command Center) Erdenebaatar Dumi (Chief engineer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Division)
	오후 몽골 주재 한국 대사관	최재하 참사관
	KOICA 몽골 사무소	이동규 소장
7. 3	오전 몽골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Battseveen Enkhmaa (Officer, Developmet Financing and Cooperation Department, 한국 담당자)
	오후 몽골 정보통신부 (IPTCP)	ALTANKHUYAG Gantumur (Officer, Policy Planning Department)
	MCS, ITS 센터, EIN 센터 재방문, 설문지 수거, 추가 요청 자료 수거 등	
KE868/ 울란바토르 출발(23:50), 인천도착(4일 03:50)		

II. 방문 기관별 활동 및 주요 면담 내용

1. JICA 몽골 사무소

□ 방문일시 : 2012년 6월 29일(금), 10시~11시 30분

□ 면담자 : Iwai Atsumu (Senior Representative)
Arai Junichi (Project Formulation Adviser)

□ 주요 인터뷰 내용

○ 일본의 대 몽골 ODA 사업 중점 분야는 광산개발과 관련한 인적관리, 관련 세금 문제, 울란바토르 시내 대기오염, 인프라문제, 인구 폭증 문제 등과 관련된 것임.

○ 일본은 몽골내 교육분야 사업에 관심이 많음.

- 2012년 몽골 교육법 변경. 관련법에 ICT 관련 사항이 추가됨.

- 기초교육 분야에서 ICT 관련 교사들의 교육 수준 향상 프로젝트, 학습자료 작성 등에 도움 주고 있음.

- 몽골-일본간 기술대학 5년 프로젝트 진행 계획

- 자원봉사자 24명이 몽골에서 컴퓨터 교육 진행 중

○ 일본은 몽골내 IT 관련 ODA 사업이 많지 않음.

- 몽골 은행 검색시스템 등 금융부문과 관련된 일부 IT 관련 사업 진행

○ 한국측이 몽골에서 진행한 IT 분야 사업 중 교통정보망 구축 사업은 알고 있었지만 EIN 사업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음.

○ ODA 사업 평가와 관련한 JICA의 몽골내 사업의 문제점

- IT 분야와 관련된 일본의 ODA 평가는 사업 종료전에 1차 평가를, 사업 종료

후 2년 경과시 2차 평가를 진행

- ODA 사업의 결과가 당초 예상과 많이 다르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① 몽골의 사업 담당자와 조직의 잦은 변경에 따라 사업 종료후 사업 운영이 어렵다는 점. 사업 종료후 해당 사업을 계속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지 의심이 감.
 - ② 사업 종료후 3~5년의 유지 보수 기간 경과후 충분한 예산을 책정하여 관련 사업을 유지해 나가야 하지만 몽골측이 충분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 ③ 사업의 유지 보수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일본은 follow up 시스템을 도입하여 유지 보수에 대처해 가고 있지만 해당 시스템은 보조적인 성격이라 예산이 충분하지 못함.
- 유지 보수 지속을 위한 기타 대응책으로 JICA는 자원 봉사자를 일부 활용하고 있음.
 - 유지 보수가 필요한 시스템에 자원 봉사자를 투입하여 교육 및 유지 보수 등에 활용
 - 몽골 울란바토르 시에 쓰레기 운반차 20대를 공급하는 사업을 진행한 바 있음. 차량 고장이나 수리 등에 자원 봉사자를 2년간 투입하여 도와줌.
 - 교육분야와 관련하여 선생님들에게 자원봉사자를 투입
- 기타 몽골내 ODA 사업의 문제점
 - 당초 사업의 예상과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있어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JICA는 몽골 중학교 학교 건설 사업을 진행했지만 지붕에서 물이 새는 문제 발생. 몽골내 시설 부족과 절차 문제 등으로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 몽골 담당 공무원 및 시설 담당자에게 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기술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담당자가 자주 교체되어 교육을 다시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 몽골 공무원은 인력이 매우 부족하며 시간과 급여 부족 등으로 이직율이 높음.

○ 한국의 몽골내 IT 사업을 평가한다면?

- 개인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 다만 한국이 IT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는 관계로 동남아 등지에서 IT 관련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JICA 몽골 사무소측에서도 몽골내 한국의 IT 사업 평가에 관심이 있음. IT 분야 ODA 사업의 문제에 대해 추후 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요망

- 관련 정보는 추후 EDCF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언급

2. MCS

면담일시 : 2012년 6월 29일(금), 12시~12시 30분

면담자 : Och, Ch (MCS, Electronics LLC, Head of Project Dep.)

주요 활동

○ 수혜자 설문 조사 관련 협의

3. 울란바토르 교통통제센터(ITS)

□ 방문일시 : 2012년 6월 29일(금), 2시~4시

□ 면담자 : Lamkhuu Battsooj (Director)
Dugerjav Batbold (IT engineer)

□ 주요 활동 및 인터뷰 내용

○ ITS 센터방문 및 운영관계자 면담을 통한 자료 수집

○ ITS 사업의 시행

- 사업시행과정의 애로사항은 별로 없었음: 한국측이 설치작업을 담당하였으며 기후조건에 따른 공사의 지연 없었으며, 공사기간 교통관리는 경찰국의 협조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큰 무리가 없었음.
-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단속카메라 추가 설치, 교통신호조절기(TSC) 추가 설치 등) 되었으나 사업 진행과정의 문제는 없었음: 하청업체와도 문제없었으며 서로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데 문제없었음. 사업시행 후 시스템적으로 일부 문제가 있었으나 큰 문제는 아니었음.

○ ITS 사업의 운영

- 사업이 성공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사업시설이 아직까지는 잘 작동되고 있음.
- ITS센터는 울란바토르 시청 소속이나 교통경찰청과 협력하고 있음.
- 경찰이 사업의 유치를 제안하였으며, 사업계약시 ITS센터를 몽골측에서 구축하였으며 사업 선정시 시청이 주관하는 업무가 되었음.
- 시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도로기금을 활용하고 있어 문제없음.
- 경찰은 파견근무 형태로 ITS센터에서 근무하며 시에서 월급을 받음.
- A/S기간이 2012년 11월 종료예정이며 사업시설의 인수인계 및 정상작동여부를 공동으로 점검할 계획

- 센터운영을 위한 충분한 교육/훈련이 이루어졌음.
- 현재 센터는 24시간 운영하며 35명이 8명씩 교대근무로 운영하며, 센터 설립이 후 지금까지 센터조직 구성원의 변화는 없었으며 초기 멤버가 계속 근무하고 있음.
- 시스템 교육/훈련은 신입사원 위주 선발, ITS 교육 필요, 사업자측에 요청하여 기술자 외국연수 등을 고려하고 있음.

○ ITS 사업의 효과

- 원래 목표는 신호체계관리를 통한 통합지원관리와 교통혼잡 개선이 목표인데 사업전후의 교통량 자료를 보면 효과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 시행과정에서 단속(enforcement) 기능의 추가 설치로 운전문화 개선, 교통경찰국 운영에 도움이 되는 등 추가적인 효과가 발생함.

○ ITS 사업의 문제점 및 전체적인 평가

- 문제점(개선사항): A/S 종료전 해결해야 할 문제로는 센터의 에어컨 시설, 날씨조건(특히 겨울 혹한기) 신호등이나 CCTV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 (기기 조건이 영하 50도까지 문제없이 작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체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음)
- EIN 센터와 협력하여 CCTV 영상을 공유하며 재난방지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추가적으로 발생시키고 있음.
- 웹사이트 통한 불법차량(과속, 신호위반) 번호판 공개로 범죄예방에도 활용하거나 교통사고의 과실원인을 밝혀내는 등의 효과도 발생
- 방송(TV, 라디오)을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으로 ITS 사업의 효과를 더욱 높이고자 하는 노력 병행
- 이러한 효과에 기초하여 센터확대/ITS의 적용분야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음: 단속시스템, VDS, CCTV, VMS(가변정보표지판), BIS(버스정보시스템), 주차시

스텝 등

4. 현지 파견 전문가 및 진출 기업 관계자 면담

□ 면담일시 : 2012년 6월 29일(금), 6시~7시

□ 면담자 : 강재홍(전임 교통개발연구원 원장)
LG CNS 김동희 차장

□ 주요 인터뷰 내용

○ 몽골 ODA 사업 관련 여건

- 몽골은 대중교통 수단이 거의 없고, 버스 이용도 거의 없음. 공식 택시도 없어 일반 승용차가 택시로 활용. 가짜 미터기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음.
- 몽골은 캐시미어를 활용한 섬유 산업 외에 제조업이 거의 없음.
- 주차 문제도 매우 심각함.

○ LG CNS의 긴급 구난망 사업 자체 평가

- 전반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며 몽골내 평가가 좋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긴급구난센터 건물 건축 작업은 현지 기업에게 턴키방식으로 계약
- AS 문제도 큰 문제없이 진행
- 사업 초기부터 현지인을 고용하여 개발을 함께 진행하면서 상당량의 기술을 이전해 준 관계로 현지 관계자들의 사후 처리 대응 실력과 운영 유지 능력이 뛰어남.
- 5년간 사전 준비한 것이 성공 요인

○ 운영 등 주요 문제점

- 경찰 및 보안 기관은 기존의 자체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었던 관계로 EIN 사업 수행시 기존 망을 그대로 사용. 운영시 기존망에서 부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몽골내 긴급구난망 2차 사업을 위해 노력 중
- 몽골에서의 사업 성공을 발판으로 모잠비크, 앙골라 등지에 유사 사업을 진행할 예정
- KOICA는 무상사업으로 몽골에서 소규모 IT분야 사업을 진행함.

5. EIN 센터 휴일 활동 점검 및 시내 교통 관련 기기 설치 확인

활동 일시 : 2012년 6월 30일(토) ~ 7월 1일(일)

주요 활동

- EIN 센터 방문, 휴일 활동 상황 점검
- ITS 사업 관련 울란바토르시 시내 제어기 및 CCTV 설치 장소 확인
- 울란바토르 시내 VMS 설치 확인
- 주요 혼잡지역 교통 상황 확인
- 일반 수혜자 설문조사

6. Information Emergency Command Center (긴급구난통합지령센터)

□ 면담일시 : 2012년 7월 2일(월), 10시~1시

□ 면담자 : Batchuluun Tseren (센터장), Erdenebaatar Duni (경찰부문장), B. Altankhuyag (소방·재난부문장), T. Batider (긴급의료부문장), Shinekhuu Chojil (무선통신부문장), Enkhmuron Namjildorj(엔지니어) 등 10명

□ 센터구축 수행기관 : LG CNS

□ EDCF 공여내용 :

- 긴급구난정보망 사업은 울란바토르시의 치안, 재난, 구급 업무를 통합하는 정보통신망 구축사업
- 주요 사업내용은 통합지령센터 건립, 네트워크 구축, 통신장비 구축,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주파수공용 전화시스템(TRS) 구축, CCTV 설치 등임.

□ 주요 인터뷰 내용(답변 위주로 작성)

- EIN통합지령센터가 구축되기 이전에는 모든 업무가 컴퓨터 자동화로 연결되지 못해 긴급 상황신고 접수되더라도 긴급출동으로 연결이 지연되고, 또한 치안, 재난 구급 부문을 각각 별도로 운영하여 업무 효율성이 매우 낮았음.
- EIN구축 이후에는 범죄억제, 화재 및 재난·재해, 긴급의료 등에 신속히 대응하게 되었으며, 경찰의 업무수행 능력 및 효율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었음. 특히 유사기관과의 관련정보 공유 및 통합을 통해 사건사고 예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
- 한국의 우수한 IT기술수준을 이미 알고 있었고, 몽골의 공공안전 정책에 반영하려고 한국에 요청하여 성사되었음. 한국은 정보통신 인프라정책이 잘 갖추어져 있고, 인터넷을 비롯한 정부전자가 발달한 것으로 인식함.
- 통합지령센터의 업무추진 체계는 몽골 법내무부 산하 경찰청 소속으로 되어 있어, 경찰청의 지휘체계를 밟고 있으나, 의료부분은 보건부, 소방재난 부문은 재

난방재청 등에서 파견 나와 있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 EIN통합지령센터 설립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도 없고, 조직체계도 개통식 전 날에 긴급 구성하였다고 하며, 전체예산은 경찰청에서 편성한다고 응답하였음.
 - 다소 우려되는 점은 센터업무가 늘어나 인력 충원할 경우 경찰청직원 외의 다른 부처 인력 확충에 마찰의 가능성도 있고, 지속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에 타 부서업무까지 포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음.
- 현재는 전체 구성원 151명이 치안부문, 재난부문, 의료부문, 기술부문, 행정부문으로 나뉘어 근무하고 있으며, 특히 치안, 재난, 의료 부문은 4교대(21명씩)로 24시간 근무하고 있음.
- 센터 완공후 2년 동안 운영해 왔으나, 큰 문제는 없었으며, 문제가 발생해도 신속히 대응하는 체제를 갖추었음. 예를 들어 몽골에는 전기사정이 좋지 못해 정전사고가 빈번히 발생(1개월에 4~5번씩)하고 있으나, 비상발전기 운용(3~5초후 가동가능체계)과 UPS(무정전전원장치)를 운영하여 신속히 대응한다고 함.
 - 하지만, 전기의 품질이 고르지 못하고 정전이 잦아지면 통신기기의 고장 원인이 되므로, 시스템 오작동이나 가동불능상태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됨. 이러한 점 질문에는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만 응답했음.
- EIN구축 계획당시 설계에서 다소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이는 IT기술혁신 속도와 사전 타당성 조사가 미진했던 것으로 사료됨. 예를 들어 CCTV의 경우 60대 설치를 설계했으나, 변경하여 21대(시내 19대, 산불감시 2대)만 설치되었음.
- 2011년 몽골 국회에서는 민간기업이 지방도시인 Dankhan시에 구축한 것보다 EIN 및 ITS구축에 드는 비용이 너무 과대하게 소요되었다고 정부를 추궁한바 있으며, 이로 인해 감사원에서 비교조사를 하였다고 함. 여기서 EIN 및 ITS는 센터건물 짓는 것까지 포함되었으나, 지방도시에는 건물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함.
- 센터내부의 컴퓨터는 외부인터넷과 차단되어 있어, 외부 해커의 침입이나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점은 우수함.
- 동 센터에서는 ITS(지능형교통통신시스템)와 공조를 통해 업무효율을 높이고 있

음. 예를 들어 화재발생시 신호등을 원격 조정하여 소방차 출동이 원활해지도록 공조체제를 갖추고 있음.

- EIN구축 이후 긴급구난 신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신고해도 현장출동으로 연결이 잘되지 않았으나, 시스템 구축이후에는 신속한 업무처리로 인해 신고건수가 늘었음. 장난전화는 오히려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상대를 곧 바로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인해 장난전화에 대한 인식이 전환된 것으로 보임.
- EIN구축 이전에는 각 기관이 사건사고를 각각 별도로 작성하여 통합적인 판단이 어려웠는데, 통합 이후에는 DB구축을 통해 정확한 통계집계와 각종 증빙서류 발급 및 조회를 신속히 할 수 있게 되었음.
- EIN통합지령센터 시설 및 운영체계가 몽골정부의 공공안전에 대한 자부심과 대외과시용으로 활용되고 있음. 외국 귀빈들의 견학코스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대국민 홍보용으로도 활용하고 있음.
- 몽골측의 요구사항
 - 한국에 바라는 점은 1차 EIN구축 내용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2차 사업을 계속 협력을 해주었으면 함.
 - 전문기술 교육을 더 요구함.
 - 예비부품이 더 많이 확보되도록 요구함.
- 센터 직원들의 애로사항(현장 설문지에서 발췌)
 - 센터 실내 공기가 너무 탁하고, 먼지가 많고, 환기가 잘되지 않는다고 함.
 - 센터 각 구성원의 전화 받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서로 전화를 잘 받지 못하는 실정임(이는 아마도 몽골언어의 특성상 큰 소리가 많아 그런 것으로 생각됨). 방음막 장치를 더 강화해 줄 것을 요구
 - 탁자 밑이 너무 비좁아 다리를 펼 수가 없음.

- 탁자 위에 자료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음.
 - 헤드셋을 너무 오래 착용하여 귀가 아프고 스트레스가 심함.
 - 헤드셋 오작동 심하고, 소리가 너무 커서 불편함.
 - 무선 헤드셋 설치하여 독일처럼 움직이면서 받도록 조치요망
 - 최신 IT기술 교육 강화 요구
 - 매뉴얼 충분히 만들어 줄 것을 요구
 - 예비부품 충분히 확보 요망
 -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조치 요망
 - 컴퓨터 추가 설치 요망
 - 프린터 설치요망
 - 컴퓨터 전자파 방지대책 요망
 - 휴게실 넓혀 줄 것을 요망
 - 각종 정보자료 비치 요망
 - 필기구 지급 요망
 - 현재 4교대를 5교대로 늘려 줄 것을 요구
- EIN통합지령센터 정문에 위탁사업을 수행한 LG CNS 로고 펜넬이 자랑스럽게 붙어 있으나, 이를 지원한 EDCF는 전혀 없었음.
- 센터내부 상황실에서 센터장이 Presentation할 때도 한국의 LG CNS가 구축해 주었다고 화면으로 보여주고 설명했지만, EDCF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음.

- 센터 직원들은 EDCF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았음.

7. 주몽골 한국 대사관

□ 방문일시 : 2012년 7월 2일(월), 3시~3시 30분

□ 면담자 : 최재하 참사관

□ 주요 인터뷰 내용

○ 몽골내 ODA 사업 관련 문제점

- 가장 큰 문제는 분절화 문제임.

- 몽골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지만 인구는 289만으로 매우 적어 1인당 GDP도 급 성장하고 있음.

- 조만간 몽골 국민 1인당 GDP가 7,000~10,000 달러로 높아질 경우 ODA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 있음.

- 따라서 5~7년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몽골 소득 수준에 맞춘 공여 문제 등 몽골내 공여기관 회의는 활성화되어가고 있음.

○ 교통 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 울란바토르 시내 구간별로 국가별 시스템을 따로 한다는 것은 문제임. 타 공여기관과 공동으로 통일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시내 교통 사항을 보면 시스템 문제로 인해 시간대별로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고 있음.

- 동일 시스템으로 교체하자면 한국만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타국, 타 공여

기관과 공동으로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몽골내 사업 분절화 문제

- EDCF측이 현지 대사관에 진행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제때에 제공하지 않아서 뒤늦게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음.
- EDCF의 현지 사무소가 없어서 정보를 받는 것이 어렵지만 정보를 빨리 얻는 게 중요함.
-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일부 분절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임.

○ 분절화 문제 등을 고려하여 IT 부문의 ODA 사업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보다 규모가 큰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무상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을 진행하여 몇 년 후 효과가 크게 약화되는 사업 보다는 일본이나 중국과 같이 보다 규모가 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
- 사업 완료후 홍보보다는 사업 규모를 늘려서 수원국이 어떤 것을 받았는지 확실하게 알게 하는 것이 중요
 - 몽골내 수원 기관은 자신들이 받은 것만 알고 다른 부처에서 받은 것은 잘 모름.
 - 한국이 몽골에 대해 많이 도와주고 있음에도 무엇을 도와주었는지 잘 모르고 있는 형편

○ EDCF 사업의 경우 우리측 주도가 아닌 몽골 정부의 주도하에 사업을 진행되는 경향 있음.

- 우리가 아닌 몽골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라면 자체 예산으로 진행해야 할 것임. 우리 돈으로 몽골 예산사업을 해 주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임.

8. 주몽골 KOICA 사무소

□ 면담일시 : 2012년 7월 2일(월), 3시 30분~4시

□ 면담자 : 이동규 소장

□ 주요 인터뷰 내용

○ 몽골 현지에서 IT 분야 협력 잘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국내에서 유무상 관련 기관이 통합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겠지만 현지 및 국내에서 유무상 기관 간에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통합이 아니더라도 서로 정보를 공유하였으면 좋겠음.

- 주무부처 통합보다는 정보 공유가 우선임.

○ 통합 CPS 작성되었지만 그 내용과 실제 수행 간에는 차이가 있음.

- 중점 지원 대상 분야에는 보건 분야가 포함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EDCF는 검진 센터 건립으로 보건 분야를 지원하고 있음.

- 유무상 지원기관 간에 같은 목소리를 내야할 것임.

- 몽골측도 함께 참여하여 CPS 작성한 상태로 중점지원 대상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를 지원하면 몽골측도 이상하게 여길 것

○ 사전에 정보 공유가 이루어져야 함.

- 분기별 또는 반기별 정보를 서로 제공해야 할 것임.

- 총리실에서 통합 시스템 구축을 시작하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

○ IT 전문가의 파견시 IT 사업 분야 자원 봉사 문제

- EDCF 측에서 유상부문 지원 사업에 IT 전문가 파견을 요청한다면 자원봉사자

파견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EDCF 측에서 자원봉사 파견 요청이 없었음.

○ 부문별 전문가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파견 전문가들은 현지 인적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음.

- 개별 부처 전문사업들도 현장 사무실과 협력하여 그러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개별 부처는 KOICA의 개발협력 경험을 배울 필요가 있음.

- KOICA는 전문성은 없지만 전문 기관에게 용역을 주는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함.

○ 평가사업조차 분절화되어 있음. 통합 평가 필요함.

- 분야별 평가단이 현지 조사 진행할 때 공동으로 진행하면 좀 더 나올 것

- 사업별 평가단이 제각각 진행하는 관계로 수원국 측에서도 평가단을 여러 번 맞이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

○ 기존 파견 전문가 보고서 제공 문제 협의

9. 몽골 법내무부

방문일시 : 2012년 7월 2일(월), 4시 30분 ~ 5시 30분

면담자 : Bilguundari

주요 인터뷰 내용

○ EIN 센터의 효과에 대한 개괄 설명

- 경찰은 단말기 몇 대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사건 발생 시 어디에서 지령을 받아야 하는지 체계화되어 있지 못했음.
 - 통신장비도 매우 부족하였고 메시지로만 신고를 받는 상황이었음. 신고를 해도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도 많았음.
 - EIN 센터 운영 후에는 교통사고 발생 시 바로 CCTV를 보면서 바로 처리하고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차량 운전자들도 과거와 달리 교통 법규 준수자가 많이 늘어났음.
- 법내무부는 EIN 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21개 지방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검토 중임.
 - 현재는 한 곳의 지방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진행할 계획
 - 지방 경찰들도 EIN 센터 한곳으로 정보를 통합하기를 희망
- 지휘, 운영, 법 제정 문제
- EIN 확대에 대한 2차 사업 계획은 법내무부→재무부→외무부 순으로 전달될 것임.
 - EIN 센터는 경찰, 보건, 소방 방재 등 3개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법내무부 관할하에 있으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통일된 관련법 제정 필요성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음.
 - EIN 센터 소속 기술자들의 이직으로 인한 센터 운영 문제도 현재는 문제되지 않고 있으며, 근무자들은 법내무부 소속인 것에 대해 긍지를 지니고 있음.
- EIN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 이유
- 센터가 현재 잘 운영되고 있으며, 기술적 문제도 없음.
 - 법내무보다 시민들의 평가가 좋은 편임.

- 법내무부 장관도 EIN 센터 방문한 바 있으며, 한국 대사를 만나서 EIN 센터를 꼭 방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권고할 정도로 좋게 평가하고 있음.
 - 사업 진행과정에서 제안서 작성 등 컨설팅 작업도 적절하게 진행됨. 몽골측 제안서 등의 부족한 면을 잘 지적해 줌.
- 사업 진행과정에서의 한국측과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음.
- 담당자가 아니어서 초창기 진행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법내무에서도 2주에 한 차례씩 만나서 진행 상황 점검과 지속적인 감시를 거쳐 바로 차관 보고를 진행. 부족한 상황 없었다고 판단됨.
- AS 문제와 부품 및 소모품 조달 문제도 지적할 만한 것 없었음.
- EIN 센터측에서 희망하는 보다 많은 예비품 축적 문제는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판단함.
- EIN 시스템을 ITS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음. 한국이 지원한 IT 분야 시설의 상호 이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에 크게 기여함.
- 법내무부 측에서 ITS 측에 제안하여 시스템을 연계 운영하게 됨.
- ITS 이외의 여타 분야로의 확대 응용 계획은 아직 없음.
- 다만 현재 기술자들이 충분히 실력을 축적한 뒤라면 여타 분야로의 활용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현재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 그 단계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음.
- EIN 센터 구축 이후 법령이나 조직이 직접 변한 것은 없음.
- 모두 경찰청 소속으로 있기 때문에 조직 변화는 없었음.
- 완료된 사업의 평가는 법내무부, 정보통신감시국, 감사원 등에서 1년에 한차례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함.

- 법내무부는 관련 시설이 운영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점검.
 - 예산 부정 사용 문제 등에 대한 논란은 선거기간의 정치적 문제로 발생할 수도 있음.
- 한국의 IT 부문 ODA 사업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선호하고 있음.
- 중국의 경우 대형 시설물 위주의 ODA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시설물 내부의 기자재 설치에 진행하지 않아 사용자들이 해당 시설물을 실제로 활용하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음.
 - 법내무부 입장에서는 대형 시설물 보다는 IT 시스템 등 소프트웨어적인 소규모 지원 분야가 필요한 상황이라 한국측과의 IT 부문 협력이 계속 진행되기를 희망함.
- World Bank 등의 국제기구의 IT 부문 사업은 복잡한 절차와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입찰 방식도 매우 복잡하여 몽골 입장에서 참여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음.
- 국제기구의 사업들은 특정 시점에 특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몽골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업 대상들을 그러한 시점에 맞추는 것도 어려움.
 - 입찰 절차와 예산 내역이 너무 복잡하여 몽골 인력상 요구 조건을 맞추기도 어려움.
 - 한국과 협력할 경우 세부적인 컨설팅도 도와주고,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컨설팅 받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됨.

10. 몽골 재무부

방문일시: 2012년 7월 3일(화), 10시~11시

면담자: Enkhmaa Battseveen

(Officer, Development Financing and Cooperation Department)

주요 인터뷰 내용

- ODA 사업에서 한국이 몽골의 IT 분야 지원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음.
- ODA 총괄부서인 재무부 입장에서 보는 한국의 IT 분야 사업에 대한 종합 평가
 - EDCF의 IT 분야 사업이 3개 있었음.
 - 첫 번째 사업인 국가통신망 사업은 몽골의 경험 부족 등으로 성과가 크지 못했음. 국회에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하지 않음.
 - 첫 번째 사업에 대한 평이 좋지 않아 2차 확대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음.
 - 상세한 것은 알지 못하지만 활용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임.
 - 나머지 2개 사업인 ITS 사업과 EIN 사업은 첫 번째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해야 한다는 각오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음.
 - ITS 사업과 EIN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평가도 대체로 만족스러운 상황임.
- ITS 사업과 EIN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음.
 - 건물 건축의 경우 흑한으로 인해 몽골의 건설 가능 기간이 매우 짧은 점으로 인해 완공 기간이 조금 연장되기는 하였지만 대체로 계획에 맞추어 진행되었음.
 - 수행기간 동안 기자재 고장이나 기타 문제가 있다는 보고가 재무부에 통보된 것은 없었음.
- 몽골 국회의원이 ITS 사업에 대해 비싼 가격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지적이 있었음.
 - 몽골 타 도시에서 유사 사업을 몽골 업체가 진행한 바 있음.
 - 한국 업체가 수행한 사업과 비교하여 한국의 ITS 사업이 높은 가격으로 진행

하였다고 국회의원이 지적함.

- 관련 건에 대해 국회에서 재무부를 조사하였지만 조사 보고서를 재무부에 전달하지는 않음.
 - 몽골 언론에서도 해당 문제가 몇 차례 보도됨.
 - 하지만 감사원의 최종 조사 보고에서 사업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결론은 내림.
- EIN 사업의 경우 2차 사업으로 확대 계획이 있으며 현재 상당히 진전되고 있음. 그에 비해 ITS 2차 사업은 구두로만 요청하였고 공식 요청은 하지 않은 상태임.
- 관련 부처에서 사전 전문성 검토를 진행하고 Cabinet Meeting에서 확정되면 EDCF 자금 요청과 몽골 재무부의 자금 지원을 거쳐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임.
 - IT 분야 유무상 사업의 차이도 단순히 금액(500만 달러) 기준으로 구별하여 진행. 2011~2015년 기간 동안 3억 달러의 차관 도입에 관한 정부간 협의가 진행된 바 있음.
- 몽골은 완료된 사업에 대해 2차례에 걸쳐 평가 사업을 진행
- 1차는 투입 비용에 대한 평가
 - 2차는 사업 수행상의 문제를 검토함. 완공된 모든 사업에 대해 감사원 검토를 진행하며,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을 관련 부처에 통보
 - 사업 효율성이나 질적 평가, 후속 사업 진행 여부 결정 등은 관련 부처 소관 사업임.
- IT 분야 ODA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에 추가 요청 등은 몽골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IT 분야 Action Plan에서 정하게 될 것임.
- 금년 8~9월 경에 해당 Plan이 나올 예정임.

- 몽골도 법과 제도 등이 마련되면 PPP 사업 수행을 진행하는 문제도 시도해볼 예정임.
 - KDI에서 진행한 정책자문 사업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인프라 사업 등에 대해 PPP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검토
- 재무부에서 보는 EDCF의 IT 부문 사업의 성공 요인
 - 시기적으로 적절하였음. 국내 Action Plan에서 필요성을 언급. 확대되는 자동차, 도로 사정 등을 감안할 ITS 사업 필요성 제기
 - IT 부문 첫 번째 EDCF 사업의 실패 경험으로 이후 사업들은 성공해야 한다는 의지 등으로 관련 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
- ITS 사업을 1~5점으로 평가한다면 4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음.
 - 그 근거로, ITS 상황판을 활용하여 교통 방송을 진행하고 있음. 방송을 통해 ITS 사업 결과가 활용되고 있는 것임. 택시는 관련 FM 방송을 수시로 듣고, 출퇴근 시 시민들도 교통 방송을 많이 이용함.
 - 시민들의 교통법규 준수와 교통 문화도 많이 개선됨.
 - 부족한 점은 운영과 관련 된 것으로, 교통법규 위반한 차량에 대한 자동 범칙금 부과 시스템으로 연동되지 못함.
 - ITS 문제에 관한 언론 보도와 국회내에서의 논란 등 정치적 문제도 있었음.
- EIN 사업도 1~5점으로 평가한다면 4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음.
 -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아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아직 관련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음.
- 몽골은 IT 분야 인력 양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문가 파견 사업으로는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몽골 정부는 많은 기술 전문가 파견을 기대하고 있지만 KOICA 사업은 무상 사업인 관계로 파견 전문가들로부터 원하는 만큼의 기술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고 있음.
- IT 분야 봉사단 배치 문제도 관련 전문 부처에서 요청하면 재무부에서 취합하여 KOICA에 요청하는 절차를 거침. KOICA 등 한국에서 특정 기관에 배치하기를 희망한다면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음.
- 단기 학생봉사단 보다는 장기 전문가 파견을 희망함.

11. 몽골 정보통신부(IPTCP)

방문일시: 2012년 7월 3일(화), 11시 30분~1시

면담자: Enkhmaa Battseveen

(Officer, Developmet Financing and Cooperation Dep.)

주요 인터뷰 내용

○ 정보통신부 IT 분야 사업 개괄

- 2004년부터 e-Mongol 사업 진행
- KOICA 등 한국 관련 기관과 다양한 IT 분야 사업을 진행함.
- EDCF가 진행한 EIN 센터, ITS 센터 사업은 시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음.
- 몽골 IT 분야 10개년(2002~2011년) 사업은 완료되었고 차기 10개년 사업 계획이 정부 승인을 위해 제출되어 있는 상태
- IT 분야 차기 사업으로는 브로드밴드 사업, 전자정부 구축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음.
- 우선은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타 분야도 IT 사업도 진행할 수 있기때문에 정통부에서는 21개 도, 300개 군 전국을 커버하는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진행할 예

정

- 금년에 7,000km의 네트워크 설치할 계획. 전국 70~80%를 커버. 유목민들에게는 위성통신망 사업으로 진행. 우선은 정부 기관만 대상으로 함. 일반 시민들까지 사용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임.
 - 2009년까지는 정부 예산으로 충당, 2012년에는 중국 등으로부터 오는 3억 달러의 ODA 예산과 몽골 정부 예산 등을 활용
- EIN, ITS 센터 구축 사업에 정보통신부는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음.
- 법대로 진행한다면 먼저 정통부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법내무부에서 모두 진행한 관계로 정통부는 기술적 타당성 평가만 수행함.
 - 2차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정통부는 비용 분석보다는 기술적 평가를 진행하게 됨.
- IT분야 사업을 확대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이나 연관 산업을 발전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정통부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음.
- 정부 기관별 연관성이 미약하고, 어떤 사업의 경우 복수의 부처에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지만 협력도 잘 진행되지 못함.
 - 연간 1만명 가량의 IT분야 대학생이 졸업을 하지만 기업들은 경험자 위주로 선발
 - 이노베이션 관련법이 제정되어 IT 분야 산업 육성 등 산업화 계획은 진행되고 있음.
 - IT 분야 인력 양성에 관한 계획도 차기 10개년 계획에 포함됨. 외부에서 기술 교육을 받은 전문가의 교육 내용 전파에 관한 내용도 포함.
- KOICA로부터 IT 분야 자원봉사자를 배당 받았지만 IT 분야 이외의 분야와 비슷한 업무에 활용하는 데 그침.
- 실력 있는 전문가를 파견해 주었으면 함.

○ 정통부에서 보는 IT 부문 사업의 문제점

- EIN 사업이나 ITS 사업 모두 시민들의 활용도는 높음.
- 지난해 국회에서 ITS 사업의 비용이 유사 사업에 비해 비용이 7~8배나 많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정통부 제3자 평가자로 해당 사업 평가에 참여한 바 있었음. EIN 사업과 ITS 사업 2개 모두 비용이 많다고 평가함. 단지 EIN 사업의 경우 건설 부문 때문에 비용이 많았다고 지적됨.
- 지리정보시스템(GIS) 과의 연계가 누락되는 등 구축된 시스템이 완벽하게 투자되지 못하였다는 문제가 있음.
- 사업 종료 후에도 인력 교육 등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이들 분야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음.

○ 한국과 비교할 때 World Bank 등 여타 공여기관과의 IT 사업은 절차가 너무 복잡하여 진행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음.

- 다만 한국의 경우 시설 기자재를 좀 더 고급품을 사용해 주었으면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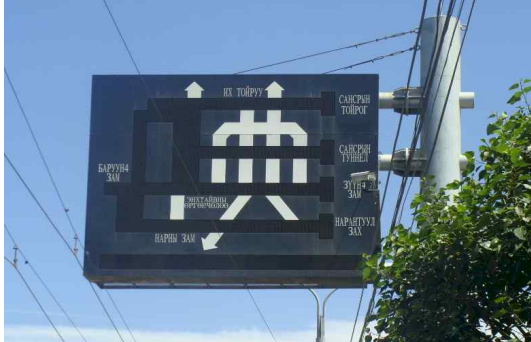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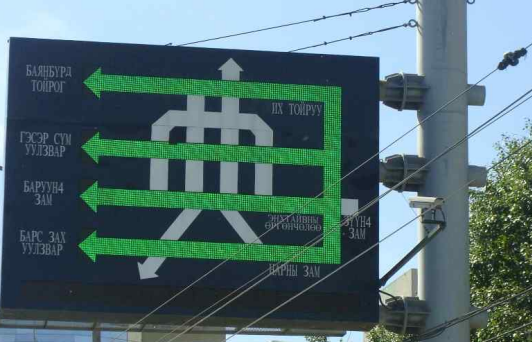


○ 1~5점 기준으로 사업을 평가할 때 개인적으로 3.5점 정도로 평가

- 활용도는 높지만 기술적 전문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음.
- AS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잘 운영될 수 있을 것인지는 잘 모르겠음.

○ IT 분야는 국가 발전의 기본적 도구이므로 모든 분야에서 IT가 들어가면 좋을 것이므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이 진행되기를 희망함.

- 교육, 보건 등의 분야에서도 IT 분야가 필요하며,
- 몽골은 국토는 크지만 인구는 적은 관계로 정보 서비스의 역할이 매우 큼. 정보통신 기술로 수요에 부응하기를 기대함.

Ⅲ. 관련 사진

<p style="text-align: center;">JICA 방문</p> 	<p style="text-align: center;">ITS 센터 방문 면담</p> 
<p style="text-align: center;">ITS 센터 방문</p> 	<p style="text-align: center;">ITS 센터 종합상황판</p> 
<p style="text-align: center;">작동을 멈춘 가변정보표지판(1)</p> 	<p style="text-align: center;">작동 중인 가변정보표지판(2)</p> 
<p style="text-align: center;">단속 및 교통정보 카메라</p> 	<p style="text-align: center;">혼잡한 도로 상황</p> 

EIN 센터장 면담



EIN 교육장



EIN 홍보관



EIN 종합상황실 (휴일 근무 상황)



EIN 서버실



EIN 프리젠테이션, 부서장 및 관계자 면담



EIN 신축 건물



몽골 법내무부 방문



몽골 재무부 방문



몽골 정보통신부(ICTPA) 방문

